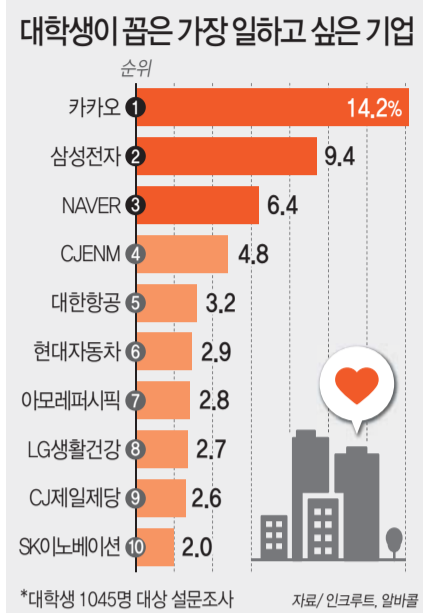


# 언택트로 비상한 '카카오', 대학생이 일하고 싶은 기업 1위

**인크루트·알바콜 설문조사**  
성장·개발 가능성 이유로 꼽아  
여성 지지율, 남성의 2.5배 ↑  
선호기업 2위, 삼성전자 차지



카카오가 삼성전자와 네이버를 제치고 올해 대학생이 꼽은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위에 올랐다.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네이버가 차지했다.

8일 인크루트와 알바콜이 공동으로 코스닥 상장사 매출액 상위 150곳(지주사 및 공기업 31곳 제외, 총 119개 기업) 중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곳과 그 이유에 대해 단일 선택토록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조사에는 1045명의 대학생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대학생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카카오로 가장 많은 14.2%의 득표율을 차지했다. 카카오는 지난 2017년 4위로 첫 진입 이후 3년 만에 10위권 재진입에서 1위로 올라

왔다. 특히 지난해 1위 네이버와는 두 배 이상의 격차로 앞섰다. 대학생들이 카카오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이유로는 ▲성장·개발 가능성과 비전(28.1%)이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워라밸을 중시하는 기업풍토(13.7%) 라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지지율 성비는 여자(71.4%)가 남자(28.6%)보다 2.5배 높았다.

대학생 입사 선호 기업 2위는 ▲삼성전자(9.4% 응답률)가 차지했다. 1위 카카오와는 4.8%포인트 차이로 작년 3위에서 한 계단 올라섰다. 삼성전자는 2004년 조사 시작 이래 2013년까지 10년 연속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올해 성별 선호기업 교차결과에서는 남성(12.8%) 최다득표로 '남자 대학생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삼성전자를 택한 이유로는 △만족스러운 급여와 보상체계(28.3%)가 가장 많았다.

작년 1위였던 네이버는 올해 응답률 6.4%로 3위를 차지 두 계단 하락했다. 네이버는 3차례 조사에서 1위에 오르며 IT 업종의 대표주자로 선전했으나, 올해는 경쟁사인 카카오에게 1위를 내줬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첫 실시한 올해 조사에서 IT플랫폼사가 두 곳이나 들었

고, 언택트 비즈니스를 이끄는 기업에 대학생들의 마음이 기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네이버 선택 이유 역시 ▲성장·개발 가능성과 비전(23.8%)이 최다 득표했다.

4위는 지난해 2위였던 ▲CJ ENM(4.8%)이, 5위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대한항공(3.2%)이 올랐다. 6위부터는 순위 싸움이 치열했다. 순서대로 ▲현대자동차(2.9%) ▲아모레퍼시픽(2.8%) ▲LG생활건강(2.7%) ▲CJ제일제당(2.6%) 순으로 득표율 차가 각 0.1%씩에 불과할 정도로 경합을 벌였다. ▲SK이노베이션(2.0%)은 10위로 순위 안에 들었다.

올해 대학생들의 선호도를 판가름한 기준은 코로나 이후 발전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기업별 최다 선택 이유로는 ▲성장·개발 가능성과 비전(카카오, 네이버) 외에도 ▲만족스러운 급여(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관심업종(CJ ENM, 대한항공, 아모레

퍼시픽, CJ제일제당) ▲동종업계와 지역사회에서 선도기업의 이미지(LG생활건강, SK이노베이션) 등 다양했다.

올해는 기존 10개의 선택이유 외에 △(포스트 코로나) 장래 사업성 유망 1개가 추가됐고, 그 결과 해당 항목에서 카카오(6.5%), 네이버(6.3%), 현대자동차(4.7%) 순으로 높은 득표율을 얻었다. 코로나19로 조명을 받은 언택트 산업이 4차산업의 핵심업종과 연결된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한편, 인크루트는 지난 2004년 이후 올해까지 17년째 매년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신입 구직자가 가장 입사하고 싶어하는 기업에 대해 조사해 10위까지 순위를 발표해 오고 있다. 누적 참여자는 2만6000명, 순위에 이름을 올린 기업은 38곳이다. 대학생들의 기업 선호도 분석은 물론 연도별 달라지는 순위를 통해 채용시장 트렌드까지 반추해볼 수 있는 지표로 평가받는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교육부, 단국대·네이버 등 매치업사업 기관 선정

**산업맞춤 매치업사업 결과 발표**  
스마트 시티 '단국대·MS·네이버'  
지능형 자동차 '현대엔지비·현대차'



교육부 세종청사

'단국대·MS·네이버', '현대엔지비·현대차'가 각각 교육부 매치업 사업 스마트시티 분야와 지능형자동차 분야 신규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산업맞춤 단계적능력인증과정 매치업' 사업 신규 운영기관 선정 결과를 8일 발표했다.

매치업 사업은 4차 산업혁명 분야 대표기업과 교육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온라인 기반 교육과정과 직무능력평가인증모델을 개발해 운영토록 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 신규 운영기관 선정에는 7개 분야 10개 컨소시엄이 신청한 가운데, 각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발표평가 방식이 추가 도입돼 최종 2곳이 선정됐다.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올해 3억2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내년 2월까지 해당 분야 교육과정과 직무능력평가인증평가 모델을 개발하게 된다.

단국대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가 참여하는 스마트시티 분야는 도시, 공간, 법 등 다양한 학문적 지식과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교육과정과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모형 개발에 나선다.

현대엔지비와 현대자동차가 참여하는 지능형자동차 분야는 자율주행을 중

심으로 한 자동차 산업 생태계 변화에 따라 산학연 전문 연계망을 활용한 교육과정 등을 개발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 매치업 사업은 K T·전남대의 인공지능, SK네트웍스·한양대의 블록체인 분야 등 올해 기준 총 8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원격교육이 병행되면서 이들 사업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구연희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산업수요에 바탕을 둔 매치업 교육과정에 대한 기업과 대학이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에, 다양한 학습자의 수요 충족을 위해 매치업 교육과정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장은 아울러 "기업과 대학 등의 관심에 부응하고 매치업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 기자

## 병무청, '아라' 병무상담 투입... 민원 편리성 ↑

(AI 챗봇 서비스)

24시간 민원 상담·신청 서비스

사부터 예비군까지 병무행정 모든 업무에 대해 상담이 가능하다.

지난 1개월 간 95%이상의 상담 성공율을 보인 인공지능 상담원 '아라'가 8일부터 병무상담에 투입돼, 민원인들의 편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병무청은 "인공지능 상담원 '아라'를 활용해 365일 24시간 민원 상담·신청 서비스를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원상담소의 평일 근무 시간에만 가능했던 상담이 '아라'를 통해 연중 24시간 가능해진 것이다.

병무청은 상담요청자 대부분이 스마트폰 채팅앱 등에 익숙한 청년층임을 고려할 때,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라'는 모든 업무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구축했다. 병역관정검

또한, 입영연기 등 민원 39종은 복잡한 민원서식 작성 없이 '아라'와 상담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개인적인 고충 등과 같이 법령에 예외적인 질문은 기존과 같이 전문상담원이 상담한다.

'아라'를 통해 입영일자 등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민원서류를 출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된다. 본인인증은 블록체인, 휴대폰, 공인인증서 등 다양하게 제공된다. 특히, 정부 최초로 적용된 블록체인 인증(DI D : 사용자 단말기에 저장된 선택적 개인정보)을 이용하면 공인인증서 없이 지문만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문형철 기자 captinm@

## 서울시교육청, '학교 공문서 감축 2.0' 계획 추진

누리집에 '보고자료 공유방' 신설  
'학교 보고문서 사전점검제' 시행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 교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수업, 생활지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공문서 감축 2.0 추진 계획'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교육정보통계시스템 누리집에 '보고자료 공유방'을 신설해 각 부서가 가진 자료를 공유하고 '학교 보고문서 사전점검제'를 시행해 공문이 꼭 필요한 것인지 한 번 더 검토한 뒤 발송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계자료 활용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교육 관련 통계를 적극 활용토

록해 학교에 불필요한 자료 요구를 줄이기로 했다.

또 지난달 27일부터 운영중인 '등교·원격수업 지원의 달' 기간 중 '공문서 모니터링제'를 운영해 학교로 발송되는

공문서를 현장의 교직원 모니터단이 모니터링토록 했다. 앞서 4월6일~5월5일 원격수업 집중의 달 기간 중 공문서 모니터링제를 운영한 결과, 학교 발송 공문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2.7% 감소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보고문서 감축을 중심으로 한 공문서 감축 정책 추진과 '등교·원격수업 지원의 달' 안착을 위한 공문서 모니터링을 통해 학교 행정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학교가 모든 역량을 학생 교육과 안전에 전념하도록 학교 현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 軍, 성범죄 관련 장병 처리기준 신설·강화

형사처벌 어려울시 계급 낮추는 강등



군 당국이 일명 '박사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장병 처리기준을 신설·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8일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처리 지시'를 제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처리기준의 제정과 관련해 국방부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가해자를 더욱 엄정히 처벌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4월 이원호 육군 일병이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 연루된 바 있다. 더욱이 병들의 휴대전화 일과 외 시간 사용이 허용되면서 디지털 성범죄를 우선적으로 예방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군 안팎에서 제기됐다.

국방부는 디지털 성범죄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벌어지는 점을 고려해 '병 휴

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징계 처리 지시'도 개정했다. 해당 규정에 '음란 영상물을 이용해 폭행·협박·강요하는 경우' 조항을 추가했다.

특히 형사처벌이 어려운 행위에 대해 징계가 가능하도록 계급을 낮추는 강등을 신설했다.

또한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징계처리 지시'를 개정해 '음란 영상물을 이용하여 폭행·협박·강요하는 경우' 등 구체적으로 행위유형을 세분화하고, 징계위원회가 정하는 징계 종류와 정도인 기본 양정을 최고 징계벌목인 강등으로 강화했다.

/문형철 기자